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그리스

Hellenic Republic

2023년 12월 28일 | 선임조사역 황수영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그리스
아테네



일반개황

면적 132천 km ² 	인구 10.5백만 명 (2023 ^f)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대외정책 친서방 정책 
GDP 2,424억 달러 (2023 ^f) 	1인당GDP 23,173달러 (2023 ^f) 	통화단위 Euro(EUR) 	환율(EUR/USD) 0.92 (2023 ^f) 

- 유럽 동남부 발칸 반도 남단에 위치한 그리스는 한반도 면적의 60%에 해당하는 국토와 10.5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튀르키예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 선박을 이용한 해운업과 고대 문화유적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여 관광업 등 서비스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이며, 식료품 가공업을 제외한 전반적인 제조업 기반은 취약한 편임.
- 2010년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유로존 및 IMF 등 국제채권단으로부터 3,0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으며, 2017년 이후 경제가 비교적 안정되었음.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관광업 회복 등에 힘입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019년 7월 집권한 중도우파 신민주당(미초타키스 총리)이 과감한 경제개혁 추진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금년 6월 실시된 총선에서 압도적인 득표율(40.5%, 제1야당연합 17.8%)로 재집권에 성공하여 향후 안정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됨.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1. 4. 5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주요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94), 투자보장협정('95), 항공협정('96), 이중과세방지협정('98), 관광협정('06), 해상협정('06), 경제협력협정('10), 군사기밀정보협정('16)

교역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출	863	2,030	1,232	선박해양구조물, 합성수지, 자동차
수입	796	1,309	902	석유제품, 농약·의약품, 기타금속광물

해외직접투자현황(2023. 9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19건, 16,895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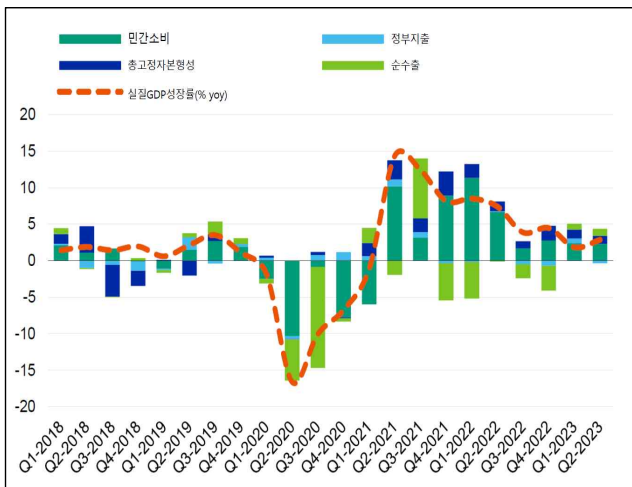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f
경제성장률	1.9	-9.0	8.4	5.9	2.5
소비자물가상승률	0.5	-1.3	0.6	9.3	4.1
재정수지/GDP	-0.0	-10.5	-7.7	-2.3	-1.6

자료: IMF

코로나19 팬데믹의 엔데믹 전환 이후 경기가 회복세이나, 인플레이션 등으로 성장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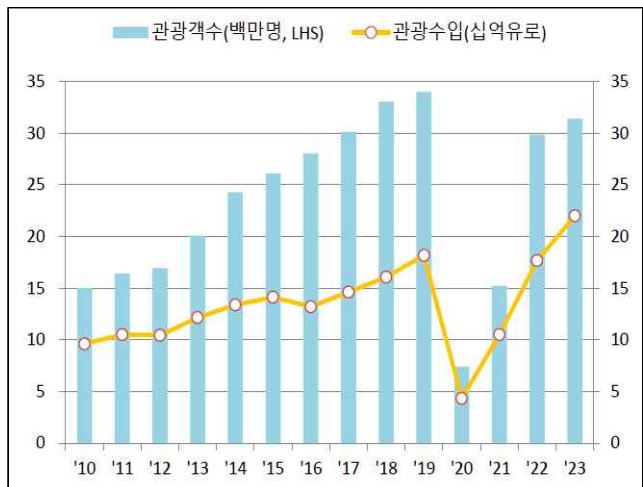
- 그리스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9.0%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투자 및 소비 증가, 관광업 회복 등으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8.4% 및 5.9%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였음. 금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수요 위축 등으로 성장률이 2.5%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IMF).
- 그리스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업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2020~22년 상반기 중 크게 위축되었으나, 작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되고 있음. 관광객 유입 수는 지난해 29.8백만 명으로 전년 대비 96%나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도 소폭 증가가 예상됨.
- 2022년에 에너지 국제가격 및 식료품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민간소비 위축이 성장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분기별 경제성장률도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그리스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교역규모가 작고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등 다변화된 천연가스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주요 교역국인 유로존의 경기 침체,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등이 간접적인 성장 저해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그림 1] 그리스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



자료 : Moody's

[그림 2] 그리스 방문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추이



자료 : Bank of Greece

국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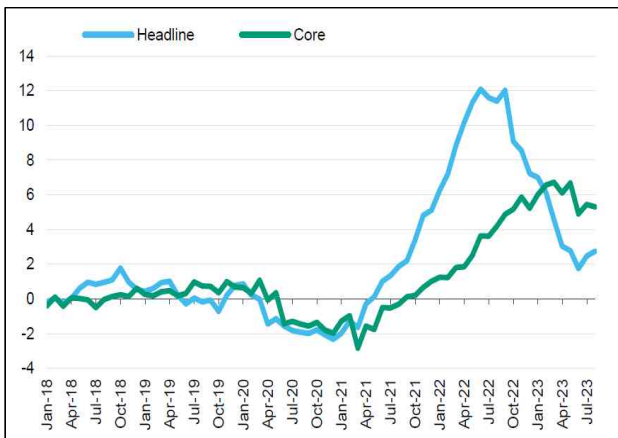
에너지 및 식품가격 상승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은 점차 진정 추세

- 그리스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2년부터 2021년 초까지 -2.0~1.0% 구간에서 움직였으나, 2021년 기후변화의 여파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곡물 국제가격 급등으로 인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음.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금년도 2023년 그리스의 민간소비는 -0.9%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EIU).
-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작년 4월 27년래 최고치인 10.2%를 기록하였고 9월에도 12.2%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급속히 하락하여 금년 11월에는 3% 수준까지 안정됨.
- 최근의 인플레이션 진정 추세는 국내 노동시장의 높은 실업률, 상품 국제가격 상승세의 둔화 등에 기인함. 금년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9.3%)보다 크게 하락한 4.1% 수준으로 전망됨(IMF).

재정수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GDP 대비 적자 비율은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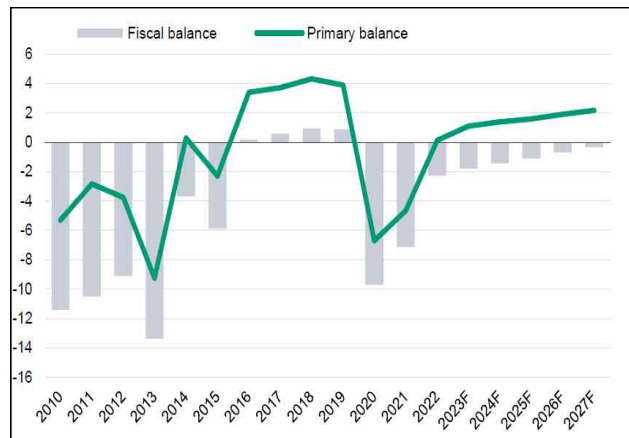
-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재정지원,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에 대응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한 결과 2020년과 2021년의 재정수지는 GDP 대비 각각 -10.5% 및 -7.7%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동 비율은 이후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개선 추세로 접어들어 2022년 -2.3%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에는 -1.6%로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그리스의 재정수지 적자 개선 추세는 최근 경기 회복에 따른 소득세 등 세수 증가, 정부의 선별적인 재정지출 및 EU의 지속적인 재정지원 등에 기인함.
- EU 경제회복기금인 '넥스트 제너레이션 EU 펀드'(NGEU)가 2026년까지 총 309억 유로를 그리스에 지원할 계획이며, 그리스 정부도 2021년부터 국채 발행을 재개하여 재정여력을 확보함.

[그림 3] 그리스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 Moody's

[그림 4] 그리스 재정수지/GDP 추이(%)



자료 : Moody's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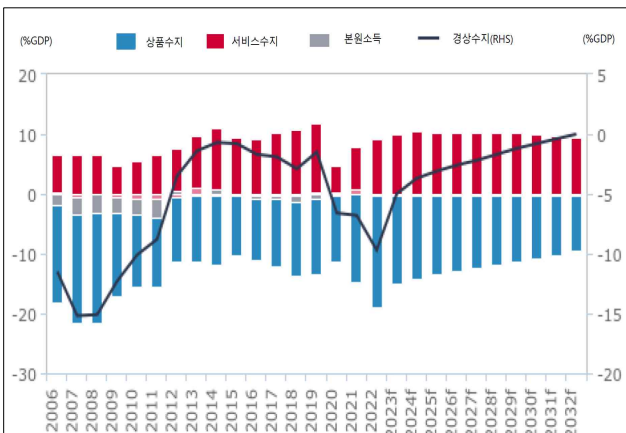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f
경 상 수 지	-3,112	-12,413	-13,858	-22,623	-15,117
경상수지/GDP	-1.5	-6.6	-6.5	-10.3	-6.2
상 품 수 지	-25,572	-21,135	-31,224	-41,590	-46,045
상 품 수 출	36,308	33,036	46,237	56,445	53,233
상 품 수 입	61,881	54,171	77,461	98,035	99,278
외 환 보 유 액	2,142	4,164	3,699	3,567	4,086
총 외 채	503,800	606,200	628,300	593,800	618,400
총외채잔액/GDP	245.4	321.1	292.2	270.9	255.1
D.S.R.	32.5	34.3	26.1	12.1	15.3

자료: IMF, EIU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지속, 서비스수지는 흑자 기조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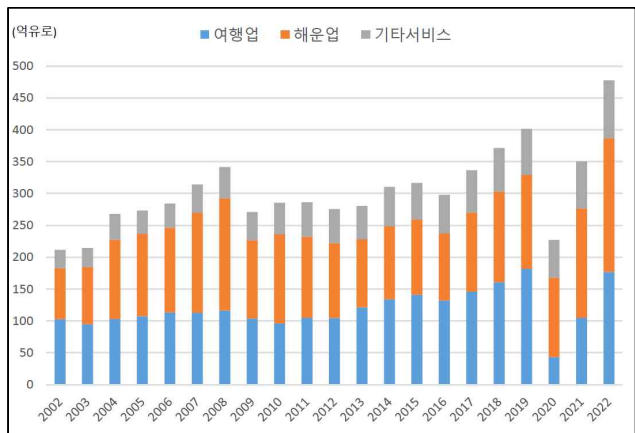
- 그리스는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여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상품수지 적자가 460억 달러(GDP의 약 19.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GDP 대비 -6.2%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 관광 및 해운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수출이 증가하여 서비스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점차 개선('24년 6.0%, '25년 5.8%)될 것으로 전망됨(Fitch).

[그림 5] 그리스 경상수지/GDP 추이(%)



자료 : Fitch Solutions

[그림 6] 그리스 서비스수출액 추이(억 유로)



자료 : Bank of Greece

대외거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공기업 민영화 추진 등으로 FDI 유입액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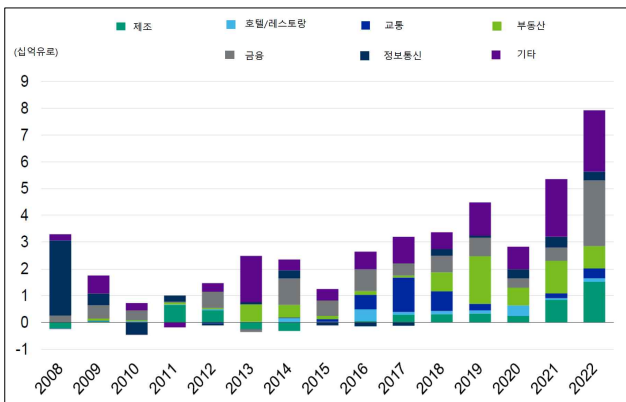
- 2022년 그리스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79.3억 유로로 2021년(53.5억 유로) 대비 48%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는 약 77% 증가한 규모임. FDI 유입 증가는 감세,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및 2021년 가스공사(DEPA)를 비롯한 공기업 민영화 추진 등에 기인함.
- FDI 유입액(백만유로) : 3,364('18) → 4,484('19) → 2,813('20) → 5,350('21) → 7,928('22)
- 2022년 기준 대 그리스 FDI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룩셈부르크(16%)이며, 이어 키프로스(13%), 독일(12%)의 순서임. 산업별로는 금융, 운송, 통신 등 서비스업 비중(59%)이 가장 크고, 이어 석유화학, 식음료 등 제조업(19%), 주택 등 부동산(12%), 건설업(4%), 전기·가스업(4%) 등의 순서임.

외채상환능력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나,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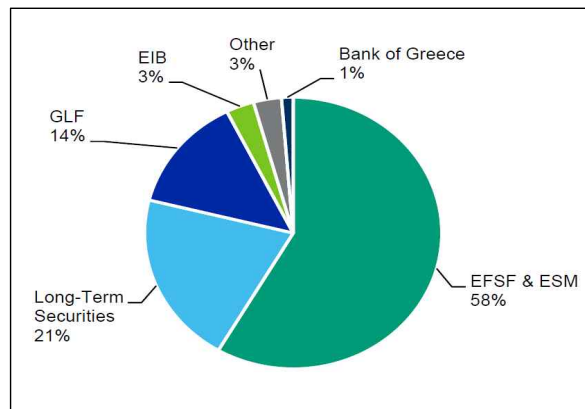
- 최근 총외채잔액 규모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으로 인한 GDP 규모 증가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20년 321.1%에서 2021년 292.2%, 2022년 270.8%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동 비율은 금년에도 255.1% 수준으로 예상되어 3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관광업 등 서비스수출 증가에 따른 총수출 증가로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20년 34.3%에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26.1%, 12.1%로 하락하였음. 그러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36억 달러로 월평균수입액의 0.31개월분에 불과하였으며, 금년에도 비슷한 수준(0.36개월)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IMF, Moody's 등은 그리스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높은 편이나, 외채의 대부분이 장기저리의 EU 지원금(유럽재정안정기금 EFSF, 구제금융기금 GLF 등)인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평가함.

[그림 7] 그리스 FDI 유입액 추이



자료 : Moody's, Bank of Greece

[그림 8] 그리스 정부부채 차주별 비중(2022년)



자료 : Moody's

구조적취약성

관광업과 해운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대외 경제환경 변화에 취약

- 2022년 그리스의 산업별 GDP 구조는 농업 4%, 광공업·제조업 10%, 서비스업 77%로 구성됨(EIU). 정유, 식품가공 등을 제외한 제조업의 발전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에너지 및 일반 공산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아울러 작년 말 인구가 1,050만 명으로 내수시장이 작은 편이며, 저출산·고령화 및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떠나는 청년층의 이민으로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내수시장 성장 전망이 높지 않음.

낙후된 인프라와 낮은 규제로 성장동력 약화

- 대부분의 인프라가 1980년대에 건설되어 낙후된 상태임. 이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리스 정부는 '그리스 2.0'이라는 경제발전 계획을 통해 도로·철도·ICT 분야 인프라 건설 및 개·보수 사업을 계획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가족기업 중심의 소규모 저생산성 기업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정부의 친기업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낮은 관행과 규제, 더딘 법인 청산절차 등이 창업 생태계를 훼손하고 신규 투자를 저해함.

성장잠재력

다수의 고대 문명 유적을 보유하여 관광 부문의 높은 발전 가능성

- 다수의 고대 문명 유적을 보유한 그리스는 관광업이 주요 산업으로 GDP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관광업은 숙박업, 외식업, 교통·인프라 산업 등에도 영향을 주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엔데믹 전환에 따른 관광업 회복이 최근 그리스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연간 그리스 방문 관광객 수는 2019년 3,135만 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한 2020년 737만 명으로 급감하였으나 이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470만 명과 2,783만 명으로 회복되었으며, 금년에는 3,141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IHS Markit).

* 관광객 수(만 명) : 3,135('19) → 737('20) → 1,470('21) → 2,783('22) → 3,141('23)

유럽의 관문이자 중동·북아프리카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

- 그리스의 주요 항만(피레우스항, 테살로니카항)은 동지중해에 위치하여 수에즈 운하를 통한 유럽과 아시아 간의 물류 운송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음. 동 항구들은 시설 현대화가 추진되고 규모가 확대되면서 물동량이 증가 추세임.
- 2020년 10월 아제르바이잔-튀르키예-그리스-이탈리아를 연결하는 가스관이 완공되고, 2022년 7월에는 그리스와 불가리아를 잇는 가스관이 완공되어 그리스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한편, EU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제르바이잔산 가스 수입을 늘릴 계획임.

정책성과

'그리스 2.0'을 통해 경제회복 및 녹색·디지털 전환 가속화

- 그리스 정부는 2021년 국가발전 중장기 계획인 '그리스 2.0'을 발표하고, 동 계획에 따라 녹색 및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27년까지 약 598억 유로를 투입하여 미래산업 및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며, 재원은 EU경제회복기금(NGEU)* 305억 유로(무상보조금 178억 유로, 대출 127억 유로), 민간자금 293억 유로를 통해 조달함.
- * Next Generation EU : 코로나19로 인한 역내 경제·사회적 피해 복구와 녹색·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EU가 채권을 발행하여 총 7,500억 유로의 기금을 조성함. 회원국들이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별 계획(NRRP, 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을 제출하여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그리스 2.0'은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고용·인재개발, 민간투자 및 경제개혁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되며 18만 개의 일자리 창출, 2026년까지 평균 경제성장률 7% 달성, 민간투자 20% 증가 등을 목표로 함. 주요 프로젝트는 아테네 지하철 4호선 건설, 5G 인프라 구축, 전기차 충전소 건설 등임.

부실여신 감축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금융권 부실여신비율 획기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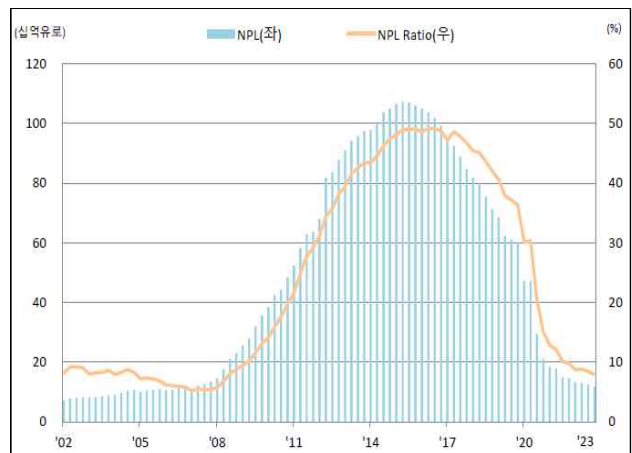
- 그리스 정부는 은행 부실여신 감축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인 '자산보호제도'(Hellenic Asset Protection Scheme)를 2018년에 마련하여 대출채권 유동화 및 판매 등을 통해 은행권 부실여신비율을 2020년 말 30.1%에서 2021년 말과 2022년 말에 각각 12.8% 및 8.7%로 크게 낮추었음.
- 또한, 은행업 건전성 회복을 위해 EU회복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RRF)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차입한 자금을 바탕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여 추가적인 부실 발생을 예방함.
- 그 결과 부실여신비율은 2016년 9월 49.1%에서 금년 9월 7.9%로 획기적으로 낮아졌으며, 향후 완만한 감소세가 예상됨(Fitch).

[표 1] 그리스 2.0 사업 주요 내용

4대 분야	주요 내용
녹색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가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주요도시 전기차 충전소 설치(전기버스도입) 등 • 관계시설, 홍수예방 프로그램 사업 등
디지털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인프라, 고속 광대역, 해저광케이블 등 • 공공부문, 교육, 보건분야 디지털화 • 전국민 디지털 문맹률 감소 사업
고용 및 인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실업자 및 저소득층 고용률 제고사업 • 전국적으로 보육시설 확충(53,000개 이상) • 공중 보건프로그램 개선사업
투자 및 경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륙과 도서지역 간 통신망 격차 해소 • 공공조달 법제화로 투명성 제고 • 법조인 교육 확대 및 법률기록 디지털화

자료 : 그리스 재무부

[그림 9] 그리스 은행업 부실여신 추이



자료 : Bank of Greece

정치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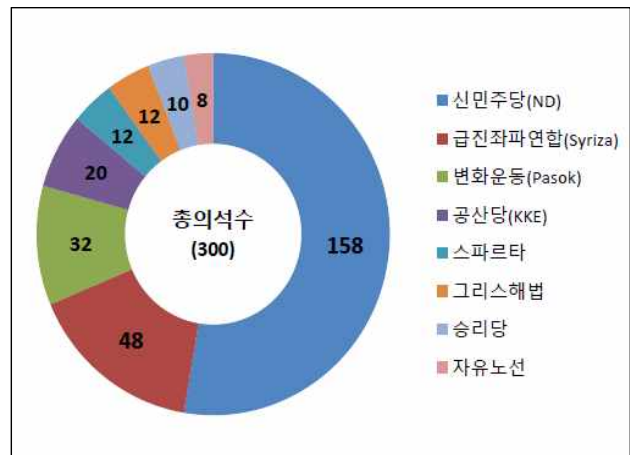
중도우파 신민주당(ND)이 2019년 집권 이후 시장친화적 개혁정책 적극 추진

- 2019년 총선에서 중도우파 신민주당(ND)이 급진좌파연합인 시리자(Syriza)를 물리치고 승리하여 미초타키스 현 총리가 집권하였음. ND는 집권 이후 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발판으로 개혁정책을 추진하였음.
- 미초타키스 행정부는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금 감면, 행정절차 간소화, 외국인투자 유치 등 시장친화적 개혁정책을 추진하였고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한편, 2022년 8월 그리스 정보당국이 야당 정치인 등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었음.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미숙한 대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생활수준 저하 등으로 집권당 지지율이 2020년 말 45%에서 2022년 6월에는 36%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음.

금년 6월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하여 안정적인 개혁정책 추진 가능

- 금년 6월 25일 실시된 그리스 2차 총선에서(5월 21일 실시된 1차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ND가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연정 구성을 포기함에 따라 2차 총선을 치름) ND가 40.5%를 득표, 17.8% 득표에 그친 Syriza를 물리치고 재집권에 성공함.
- 총 300석 중 ND가 158석으로 과반을 차지하였고 이어 Syriza 48석, 변화운동(Pasok) 32석, 공산당(KKE) 20석, 군소 극우정당(스파르타, 그리스해법, 승리당) 34석 등임.
- 유권자들이 경제회복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포퓰리즘 공약(연금액 인상 등)을 내세운 야당보다 재정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 경제를 회복의 길로 유도해온 현 집권당에 지지를 보낸 결과로 분석됨(EIU).
- 금년 10월 8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아테네 등 주요 도시에서 ND 후보들이 승리하여 ND의 의회 내 입지가 강화됨.

[그림 10] 그리스의 정당별 의석 배분



자료 : 그리스 내무부

- 제1야당의 분열 조짐 등 야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차기 총선(2028년 예정)까지 현 집권당인 ND의 독주가 예상되며, 이에 미초타키스 행정부는 시장친화적 개혁정책을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EIU).

사회동향

주택가격 급등, 높은 실업률 등이 주요 사회적 불안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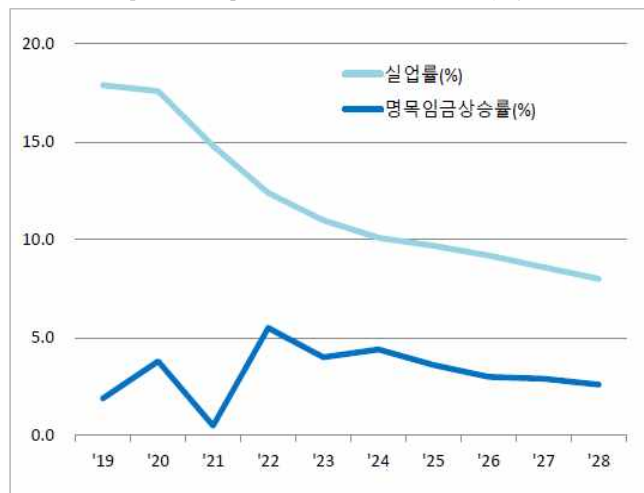
- 그리스의 주택가격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5% 이상 급등하였고, 2022년에도 10% 이상 상승하였음. 가치분소득 대비 주택비용 비율도 2022년 34.2%로 EU에서 가장 높음.
- 이처럼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골든 비자'(Golden Visa) 정책에 따른 외국인 자본 유입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그리스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2년 외국인의 그리스 부동산 투자액은 전년(11.7억 유로) 대비 68% 증가한 19.7억 유로이며, 이는 전체 FDI 유입액의 30.8% 수준임.
- * 골든 비자 정책은 그리스 내 부동산을 구매하는 외국인에게 거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4년에는 25만 유로 이상 투자자에게 5년의 거주권을 제공하였고 2018년부터는 40만 유로 이상 예금자 또는 주식 투자자로 대상을 확대함. 그리스의 골든 비자 기준금액은 EU 회원국들 중 가장 낮음.
- 높은 실업률도 그리스의 고질적인 사회문제 중 하나임. 2019년 18%에 달했던 실업률은 견조한 경제 성장 등으로 2020년 이후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2022년 12.4%에 이어 금년에도 11% 수준으로 전망됨(EIU).
- 정부의 최근 최저임금 인상(작년 5월 7.5% 및 금년 4월 9.4%)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률 등으로 그리스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2023~24년 기간 중 평균 4.2%에 그칠 전망이다(EIU).

[그림 11] 그리스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



자료 : Bank of Greece, EIU

[그림 12] 그리스 실업률 추이(%)



자료 : EIU

국제관계

미국 EU 등 서방 진영과 경제 및 군사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그리스는 미국과 1990년 체결한 상호방위협정을 2021년에 5년 연장하는 등 미국 및 EU 등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은 그리스 내 군사기지를 군사작전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그리스 북동부 알렉산드루폴리스 항구는 미국의 군수품 물류의 거점임. 2021년에 동 항구를 이용한 군수물자 수송 건수가 약 3,100건에 달하며 이는 2020년보다 14배 증가한 것임.
- 알렉산드루폴리스 항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사·경제적 요충지로 급부상하여, 미국이 이를 군수물자 운송 거점으로 활용하는 와중에 러시아는 그리스 기업들과 연대하여 항구 주도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그리스를 발칸 반도, 흑해 및 동지중해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국가로 보고 있으며, 양국은 에너지 협력, 안보 등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있음.

뿌리 깊은 숙적인 튀르키예와의 관계는 최근 개선 조짐

- 오토만 투르크 제국(튀르키예의 전신)에 의한 동로마 제국(그리스의 전신)의 멸망 이래 그리스와 튀르키예는 오랫동안 앙숙 관계로, 최근 그리스는 난민 문제 및 동지중해 자원 개발 문제 등으로 튀르키예와 갈등 관계임. 그리스는 중동 및 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으로 유입되는 통로이며 그리스 정부는 불법 이민을 차단하기 위해 튀르키예 접경 지역에 설치했던 길이 약 40km의 울타리를 확장한다고 발표하였음(2022년 8월).
- 2022년 10월에는 지중해 연안 5개국(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키프로스, 몰타)이 공동 성명을 통해 EU의 국경수비대가 불법 이민 방지를 위해 튀르키예 등으로 감시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리스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하는 키프로스 섬 인근 지역에서 2020년 8월부터 튀르키예가 천연가스 탐사를 개시하여 양국 간 EEZ 분쟁이 촉발됨. 이후 수 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2022년 8월 튀르키예가 가스 탐사를 재개하면서 양국 간에 긴장이 고조되었음.
- * 키프로스는 1974년 8월 내전 결과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키프로스(인구의 대다수가 튀르키예계)는 튀르키예의 영향권이고 남부의 키프로스 공화국(인구의 대다수가 그리스계)은 2004년 EU에 가입함. 키프로스 해역의 가스 전 개발을 계기로 튀르키예, 그리스 등 관련국 간에 EEZ 확정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 다만, 금년 2월 튀르키예 대지진 발생 시 그리스가 제일 먼저 구호팀을 보내면서 양국 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금년 9월과 12월 양국 정상은 만나 관계 개선 로드맵을 협상하는 등 관계 개선의 조짐이 있으나, 영토, 난민 등 민감 사안에 대한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EIU).

외채상환태도

IMF 구제금융 조기상환 등으로 외채상환태도 양호

- 그리스는 2010년 이후 재정위기로 유럽 기금(EFSF, ESM 등), IMF 등으로부터 2,887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2018년 3차 구제금융이 종료됨.
- 그리스는 2022년 4월 19억 유로의 채무를 2년 앞당겨 상환하여 IMF에 대한 채무를 전액 상환함으로써 약 2.3억 유로의 이자비용을 절감하였음.
- 그리스의 총외채잔액 규모는 최근 GDP의 2.5~2.7배 수준으로 타 유럽 국가 대비 높지만, 외채의 약 83%가 정부 부채로서 대부분 저리의 EU 지원금임. 아울러 그리스 국채의 90%가 유로화 표시 채권으로 대부분 EU 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이며, 최근 경기 회복으로 GDP 대비 외채 비율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Fitch).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미평가(2013.01)	0등급(2012.01)
Moody's	Ba1 (2023.09)	Ba3 (2022.09)
Fitch	BBB- (2023.12)	BB (2022.01)

재정건전성 개선, 부실여신 감소 등으로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

- S&P는 금년 10월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BB+에서 투자적격등급인 BBB-로 상향 조정함. 정부 개혁정책 성과의 가시화, EU 기금 지원에 따른 재정여력 확보, FDI 유입에 따른 투자 증가 등이 등급 상향 조정의 주요 요인임.
- Moody's도 금년 9월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Ba3에서 Ba1으로 두 단계 상향 조정하였으며, Fitch도 금년 1월 BB에서 BB+로 상향 조정한 이후 금년 12월 투자적격등급인 BBB-로 상향 조정하였음. 이는 그리스의 개혁정책 추진에 따른 경제회복 기초, 은행권 부실여신 감소 등을 반영한 것임.

- 그리스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관광업 위축 등으로 2020년 -9.0%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으나, 이후 관광업 회복, FDI 유입액 증가 등으로 2021년 8.4%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음. 2022년에도 국내소비 및 투자 증가 등으로 5.9%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최근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둔화 등으로 금년에는 2.5% 수준으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그리스 정부는 EU 회복기금(NGEU)을 재원으로 중장기 국가발전계획인 '그리스 2.0'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성장, 미래산업 개발, 인재 육성 등이 동 발전계획의 주요 정책 목표임.
- 2019년 총선에서 중도우파 신민주당(ND)이 집권한 이후 세제 개혁, 외국인투자 유치 등 시장친화적 개혁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여 대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음. ND는 금년 6월 총선에서 40.5%의 득표로 재집권에 성공하여 향후 안정적인 개혁정책 추진이 기대됨.
- 동지중해 에너지 개발 및 난민 문제 등으로 튀르키예와 오랫동안 갈등을 겪고 있으나 금년 들어 양국 정상 두 차례 만나 관계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협의하는 등 화해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그리스는 NATO 회원국으로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등 서방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